







11월, 온기를 나누는 작가의 산책길

□ 공연 일정

일 시		장 소	출 연 자	비 고
11.02.(토)	17:00~18:00	구)서귀포관광극장	연무용단	전통무용예술단
11.09.(토)	17:00~18:00	구)서귀포관광극장	소리깨떼	플라멩코x국악
11.10.(일)	15:00~16:00	구린샛길 심터	둘넛길	통기타 4인조
11.16.(토)	17:00~18:00	구)서귀포관광극장	퓨전사이	성악극

※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내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□ 공연팀 소개

사 진	출 연 자	비 고
	연무용단	-제주 연 무용단은 제주 삶의 이야기를 무용으로 풀어내고자 제주의 아픈 역사와 문화, 자연을 소재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을 전하며 희망을 기획하고 춤추는 무용단이다.
	소리깨떼	- '소리깨떼'라는 팀명은 국악의 '소리'와 플라멩코에서 박수와 발구름소리로 박자를 맞추며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을 뜻하는 'Soniquete(소니깨떼)'를 합친 단어로 국악과 플라멩코의 만남을 의미한다.
	둘넛길	- [둘넛길]은 서귀포에서 통기타를 사랑하는 4명이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동아리로 통기타로 표현할 수 있는 서정적인 음악으로 추억과 사랑과 인생을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를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
	퓨전사이 (오종협, 박선영)	-2024년에 결성이 되어 2인으로 구성된 저희는 클래식과 대중음악 '사이'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융합하여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서 관객에게 다채로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팀